

한병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6. 2. 3. 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 대한민국은 정상화 중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5천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도 1천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이 늘며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주도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통상 협상도 타결됐습니다.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를 진전시켜, 자주국방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했습니다.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를 회복하고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계엄군에 맞서 내란을 저지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내란종식이 곧 민생회복

법원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내란일당은 이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란 전모는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순직해병사건 구명로비의혹도 장막에 가려 있습니다.

법원이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등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건희가 국정농단 실세였다는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출범시켜 김건희 의혹과 실체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정교유착 의혹도 털어내야 합니다.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 당원가입을 통해 정당경선에 개입한 것은 헌법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통일교 · 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단절합시다.

■ 검찰 · 사법개혁은 시대정신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사법개혁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왜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지귀연 판사는 왜 시간계산이라는 논리로 윤석열을 석방했는지.

대법원은 어떻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했는지.

내란세력 비호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최우선 가치는 민생

민주당은 지방,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부문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해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정부는 AI 교육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입법으로 ‘모두의 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민생은 속도가 중요

제22대 국회의 법안처리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개원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처리율은 22.5%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사와 처리를 야당에 요청합니다.

민생과 국익 앞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을것입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여, 국정과제와 민생법안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AI 신문명 시대, 추격자를 넘어 선도자로

AI가 일자리를 뺏는 위협이 아니라, 국민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가 되도록 제도를 재배치해야 합니다.

AI와 로봇이 창출하는 부가 소수에만 집중된다면 대다수 국민은 좌절할 것입니다.

‘기본사회’는 기술혁명시대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시스템’입니다.

AI가 만드는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해법을 논의합시다.

남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추격자’의 시간을 끝내야 합니다.

반 발짝만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변화는 지방에서 시작

국토의 11%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60%는 소멸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주도성장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광역통합을 위한 입법도 처리하겠습니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하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주도성장과 균형발전 국정과제들도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 대전환의 분기점이 될 6·3지방선거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확정 등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부활시킨 지방자치입니다.

30여 년이 흘러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6·3지방선거를 지방주도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합시다.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기대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 평화가 민생이고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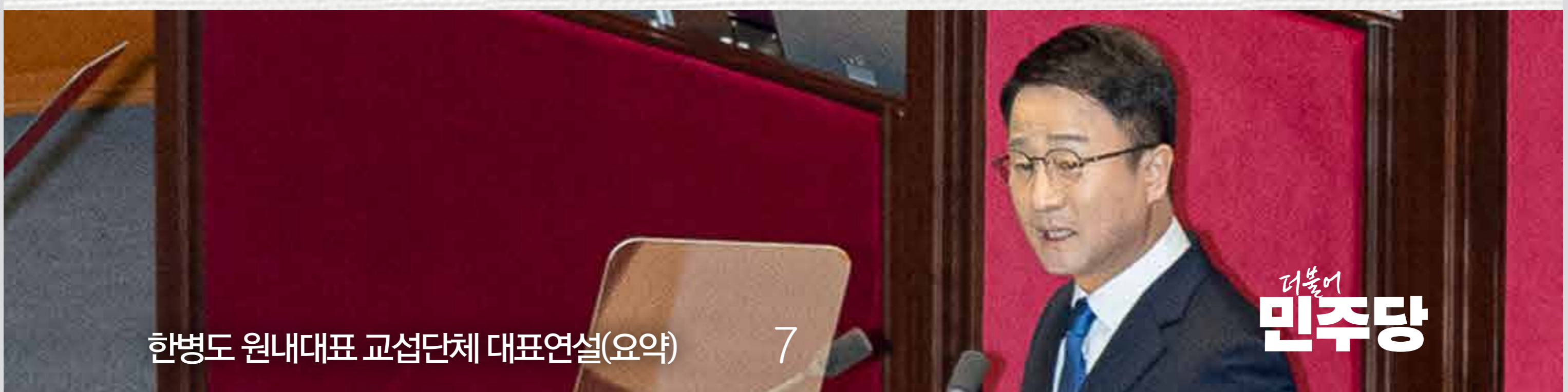
9·19 군사합의 복원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제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이 멈춘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공동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가 첫 삼을 뜨도록 제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공동체,
성별, 나이, 재산, 소득에 관계없이 행복한 사회,
일자리, 교육과 보육, 주거, 노후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나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2026. 2. 3. 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